

52. 아이(Khirbet el-Maqatir)-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 아이성 성지순례 가이드

2017. 9. 27. 23:25

<https://blog.naver.com/jbjoon63/221106771873>



“아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벧엘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장소이다(창12:8).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이어 두 번째로 함락하려다가 처음에 실패했고(수7) 야간의 범 죄를 징벌한 후에 정복한 성읍이다(수8:28).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스룹바벨과 같이 귀환한 사람들 중에 벧엘과 아이 사람도 있었다(스2:28).



에트 텔

전통적으로 성경의 아이는 “에트 텔”과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에트 텔은 기원전 3000-2400년 그리고 기원전 1200년 이후에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여호수아의 정복시기(기원전 1400)에는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없다.



초기 청동기 신전

에트-텔은 초기 청동기(3000-2300 BC)에 매우 크고(27 acres), 두드러진 도시였다. 텔의 정상에는 크고 넓은 집 형태의 건물(아마도 신전이나 궁전)이 위치했다. 지붕을 지탱하는 네 개의 커다란 돌기

등 기초들이 발견되었다.



키르벡 엘-마콰티르(동쪽에서 본 사진)
 사진에서 옛-텔은 오른쪽 가운데 장소이다. 왼쪽에 상부층 불모지(Khirbet el-Maqatir)를 여호수아가 정복한 “아이”라고 보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적절하다.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Bethel)은 베이틴(Beitin, 오른쪽 정상)과 동일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엘-비레(el-Bireh, 왼쪽 정상)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키르벳 엘-마과티르는 왼쪽 중앙, 와디 쉐반은 오른쪽

북쪽에서 본 항공사진

고고학적으로 키르벳 엘-마과티르가 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곳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 서쪽으로 향하는 깊은 와디 쉐반(Sheban)은 이스라엘 군대가 숲속에 몸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여호수아의 명령 지점은 오늘날 도로의 동쪽(왼쪽) 언덕 위가 되고 그는 숨어서 공격하기 위하여 와디로부터 떨어져서 동쪽으로 도망쳤다.



북쪽에서 본 사진

키르벳 엘-마과티르는 깊은 계곡에 의해 북쪽과 분리되어 있다. 여호수아가 이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그의 진영에서 볼 때 이 장면이 더 적합하다. 도시 요새들, 문, 전투의 증거와 불에 의한 파괴 등 많은 증거를 통해 볼 때 키르벳 엘-마과티르를 아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비잔틴 교회

비잔틴 수도사들이 4세기에 이곳에 큰 수도원을 지었는데 아마도 그것이 이곳을 “아이”로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1838년 에드워드 로빈슨(Edward Robinson)의 최초 보고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아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러한 장소에 대한 기억을 보존했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http://www.bibleplaces.com/ettell/>

출처: <http://www.bibleplaces.com/maqatir/>